

# 불신앙의 무릎을 꿇린 믿음의 비밀

## - 복음으로 여는 하박국 -

하박국2:4, 로마서 3:23-31

정운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참 자유를 누리고 모든 흑암의 세력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인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오만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세계복음화의 비전까지 저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증거 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 237의 문까지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소중환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하박국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앗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속국으로 있었던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다. 그 때 당시에는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속국으로 만들어 조공을 받는다. 조공을 받게 되면 지도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백성에게 많은 세금을 걷는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힘들어지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지도자가 앞장서서 백성을 괴롭힌다. 그만큼 사람은 힘에 약하다. 그래서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자살을 계획하면 거의 자살한다. 놀 계획을 세우면 놀게 된다. 2020년도에는 전도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친구는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사귀시라. 우리도 영향을 받는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 자기 백성을 핍박했다.

하박국이란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또는 ‘씨름하다’ 라는 뜻이다. 하박국서의 내용과 쓰여진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하고, 똑같은 갈등 속에서 의문을 던지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다. 사실은 모두가 희생자이다. 성경 전체의 목적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이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포악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냥 두냐며 말하는 것이다. 그 배후에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 모두 다 희생자이다. 여러분이 모두 살려내는 빛의 대열에 서기를 바란다. 잘못된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야 한다. 하박국서의 내용과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대답을 기록하고 있다. 똑같은 갈등 속에서 의문을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다. 하박국은 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한 것이다. 나는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질문 할 때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를 주시는 줄 믿기를 바란다. 바른 질문을 하기 바란다. 질문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아무이유나 목적 없이 의문점을 던지는 사람도 있다.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체질이 못 돼서 의문점을 던지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하여 무너뜨리기 위해서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나쁜 의도의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것들은 바른 질문이 아니다. 다음은 하박국의 질문의 의도이다. 나의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 즉,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다.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 1.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이다. 당시 남유다에는 온갖 악행과 죄악이 가득했다. 하박국은 이렇게 악한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너무나 이해되지 않았다. 하박국은 착하지만 자기 의, 율법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들이 행한 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다. ‘어찌하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엇을 부르짖었을까. ‘하나님 저 나쁜 인간들 제거해주세요. 멸망하게 해주세요. 왜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다. 3절과 4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아마 하나님은 질문하셨을 것이다.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데?’ 주님 안에서 우리는 대답할 수가 없다. 우리는 공평하고 정직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야기인 것이다. 그리고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정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말을 할 당시 하박국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율법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주의가 문제이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행위구원이 문제인 것이다. 살인은 나쁘지만 살인범도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선이 있을 수 없고, 정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시대의 문제를 하나님 떠난 근본문제에서 찾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은 정의사회 구현운동을 통하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자하는 사회운동가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음을 전해야한다. 근본문제, 사단을 이해시키고 사단을 무릎 꿇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줘야 한다.

(2)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백성의 잘못을 징계하는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지도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쳐도 됩니까?’ 질문하는 것이다. 하박국 1장 13절 하반절이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 하시나이까’

### 2.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으며,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서 행한 깊은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를 하면서 질문했던 것이다. ‘하나님이 답 안 해주시면 나는 안 내려가겠습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 질문했다. 3장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만들어서 드린다.

(1) 다음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다.  
①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동문서답이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답변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언약의 말씀은 더딜지라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깨닫게 하셨구나.’ 알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꿈과 비전을 기록하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기 바란다. 반드시 응답되는 날이 올 것이다. 모든 후대들, 램프들이 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적으라는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나의 미래와 꿈과 비전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기록하고 써야 하는 것이다. 하박국서 2장 2절-3절을 보겠다. ‘어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까 더딜지라도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불신앙하면 안 된다. 믿고 가면서 낙심하면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다리기를 바란다. 청년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다. “절대로 이 말씀 놓치지 말고 40년만 참아라.” 놓치면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믿음의 축복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②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답변은 선악의 경중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포악을 행한 지도자들이나 바벨론은 더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쁜 일 한 것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선은 구원받을 만한 기준은 아니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해적선에 타고 있으면 부지런 할수록 더 나쁜 해적이다.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착하고 정직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의 원죄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성경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 하박국 2장 4절이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냥 읽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악행을 조금 덜 해서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배경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고 우리의 원죄, 자범죄,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변화 받아 천국에 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축약해서 말한 것이다.

③ 하나님의 세 번째 답변은 결국 악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하박국서 2장 14절이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나라.’ 이 앞에 보면 결국 사탄의 세력이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앗수르에게 끌려가서 망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오히려 페르시아, 고레스왕같은 사람들과 성막을 회복하게 만드셔서 세계적으로 큰 나라가 되게 하셨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시간표가 몇백년 후에 왔다는 것을 믿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30년 후에 모든 분야에 우리들이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리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램뎀트 서밋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오직 복음에 올인했던 교회를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교회와 후대 램뎀트를 통하여 237개국에 이러한 응답이 성취될 줄 믿는다. 그래서 비전스쿨, 애프터스쿨, 램뎀트들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그 그릇을 준비하기를 바란다.

(2) 성루에서 깊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에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믿음의 고백할 하고 있다.

① 하박국서 3장 2절에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볼 수 있다. 1장 2절에는 ‘하나님 어찌하여’ 하면서 불신앙이 가득한 모습으로 기도한다. 그러나 3장 2절에는 질문과 깊은 묵상을 통하여 깨달은 후,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감 있는 기도는 사탄의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다. 하박국서 3장 2절은 확신에 넘치는 하박국의 기도를 볼 수 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과거에는 은혜롭게 읽혔다. 그러나 묵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명령하고 있다. (웃음) 내 아버지라서 확신이 있는 것이다. 그 계획과 뜻을 알았으니까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 3천제자의 응답 주셔야 돼요.” 하는 것이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정도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② 하나님께 대한 진지한 질문과 성루에서 행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답을 얻은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답은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3절부터 16절까지 다시 이 땅에 채립하셔서 사탄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라도 깊이 묵상하고 질문하면 그리스도에 도달하는 것이다. 하박국은 이 깨달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수천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것이다. 3장 3절에 ‘하나님이 데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빛나는 땅)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그날을 바라보니 지금 바벨론의 꺾박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다 보장되어있다. 또한, 3장 13절에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악인의 짐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닷까지 드러내셨나이다.’

③ 사탄의 무릎을 꿇리는 방법은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없을 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깨달으니 아무것도 필요없게 되는 것이다. 하박국서 3장 17절-18절 말씀은 ‘오직복음으로 행복한’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믿음의 고백의 말씀이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처음에는 불신앙적인 질문을 하였지만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그리스도를 발견한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결론이다. 오늘도 하박국서를 통하여 불잡을 CVDIP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첫 번째는 Covenant, 언약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최고의 언약을 발견하였다. 많은 의문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바른 질문을 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고난 받고 있는 민족의 미래까지도 보여주셨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했다. 그것이 언약이다.
2. Vision 이다. 우리의 비전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정확한 복음을 237 나라에 전하는 것이다. 우리의 시간표와 형편에 모든 것에 맞게 성령인도 받아야겠다. 너무 무리해도 안 되고, 너무 안 해도 안 된다.
3. 다음은 Dream 이다. 만약 우리들이 오직 여호와로 만족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모든 꿈은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달려가면 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마음 판에 새기고, 기록해보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꿈을 찾아야 한다. 기도하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한다. 내가 결정한 것은 무너진다.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면 절대 좌절되지도 않는다.
4. Image 이다. 하박국은 많은 의문이 있었지만 깊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의문점을 오직 믿음이라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5. 마지막으로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한주간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고백을 순간순간 실천해보시기 바란다. 끝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탄의 무릎을 꿇리는 한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한주간도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무릎을 꿇리는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번 한주간도 축복하여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